

한반도 첫 수도에 핀 예술의 꽃

고창예술인의 밤 성료... 예술인상 김동훈·예술공로상 김병옥 수상

고창예술(회장 박종은)이 '스구쳐라 고창 예술, 제16회 고창예술제'와 '제4회 고창예술인의 밤'을 가졌다.

'고창예술제'는 지난 23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렸으며, '고창 예술인의 밤'은 지난 25일 고창을 르네상스컨벤션에서 개최했다. '고창 예술인의 밤'은 고창예술 산하 5개 협회(문협, 미협, 음협, 국협, 연협) 회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더 좋은 예술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기상 군수와 이경신 군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예총회원,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은 회장은 "예향고창의 현주소는 바로 예총회원들이며 회원들의 예술수준이 높으면 '예향고창'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회원들의 수준이 낮아지면 '예향고창'이라는 말이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회원들이 스스로 예술수준을 높이고, 예술행사에 앞장서서 참여함으로써 '예향고창'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군수는 "예총 회원 여러분은 예술로서 군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예술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 예술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 예술인의 밤'에서는 협회별로 발표가 이뤄졌으며 미술협회의 매달아 놀자(조미숙), 국악협회의 판소리(김혜인) 문인협

회의 시낭송(나순희, 유영숙) 음악협회의 성악(송덕현) 연애인협회의 섹스폰연주(이정숙, 조경애, 김방순)가 진행됐다.

이후 '고창예술인상' 시상식에서는 김동훈 서예가가 수상했으며 '고창예술공로상'은 김병옥 음악가가 수상했다.

'고창예술인상'을 수여받은 김동훈 서예가는 고창군의회 의장과 성균관 유림회 고창향교의 전교를 맡아 고창을 위한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꾸준히 서예를 펼쳐 타마하고 있다.

김 서예가는 신춘회 초대작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서예대전에 3회 입선하는 등 서예활동을 탁

월하게 해 오며 월간서예실 운영으로 서예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매산 안재운 선생이 출연하여 제정한 '고창예술인상'을 받았다.

'고창예술공로상'을 받은 김병옥 음악가는 공무원 그룹사운드 '까멜리아' 팀을 결성하여 결식학생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를 조직하여 기타교실 무료운영, 거리공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를 펼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음악가는 고창실용음악연구소 대표로 '아름다운 고창 행복 만들기'를 창안하여 공연하는 등 40여 년간 지역의 대중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고창예술에서 제정한 '고창예술공로상'을 수여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25일 '고창 예술인의 밤'이 고창을 르네상스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정읍사 문학상 시상식 성료... 최우수상 조우리·우수상 신청림 씨 수상

정읍문화회(회장 지만 류승훈)가 주관하고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후원한 제6회 정읍사 문학상 시상식이 26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시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은 시부문 '내장산'의 조우리(35·전남 순천)씨가, 우수상 역시 시부문 '녹두꽃'의 신청림(59·전주)씨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정읍시 주변의 자연, 인물, 역사 등의 정서를 소재로 올 6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공모에는 전국에서 시 250여 편과 수필 30편이 접수되어 엄정한 심사 끝에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위한 심사위원은 이운룡 시인 겸 문학평론가, 류희옥 전북 문협 회장, 나혜경 시인이 맡았다. 다만 심사위원들은 "수필 분야는 아쉽게도 최후심까지

올라온 작품이 없어 시 부문에서만 수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운룡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조우리 씨의 시, '내장산'은 시적 호흡이 거침없이 길고 상상력이 풍부할 뿐더러 시의 본래 기능인 미의식과 심층적 내면의식 표현이 여타의 작품과는 확연히 다른 장점을 보여줌으로써 심사위원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없이 최우수작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조씨의 시 '내장산'은 자연 그대로의 내장산이 아니라 뜻있는 사람의 산 실물로서 영원히 기리고 영혼을 정화하는 이상적 존재로 역사의 주인이요, 위대한 인간형으로 승화시킨 점 등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평했다.

"신청림씨의 시, '녹두꽃'은 비교적 시적 언어 구성과 리듬과 대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일반적인 시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

면 시적 형상화를 위하여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여 우수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림자도 들어있고 바람도 울리고 있는 그 너머에서 달빛 수상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머뭇머뭇 하늘을 핑계 삼아 구절초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아름다운 정읍의 기운을 받아 더욱 흔들리며 글을 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신청림은 "모두가 고뇌하기를 꺼려하고 삶의 진정성마저 훼손돼 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시와 문학은 시대의 괴로움을 함께하며,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된 사회를 고발하는데 시인의 존재와 사명이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조금씩 시적 역량을 길러서 성숙한 시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청주시립국악단·남상일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의 또 다른 부활'

부안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공연 내달 16일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오는 11월 16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청주시립국악단·남상일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의 또 다른 부활'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성진 교수의 객원 지휘로 국악관현악곡 '예헤이요'를 시작으로 마두금 협주곡 '자연의 정신'이 연주된다. 이어 남도아리랑, 사물놀이 협주곡 '신도름', 국악인 남상일씨의 민요연곡, 장타령, 아리랑연곡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악기가 가진 원초적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악의 폭넓은 영역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즉흥적인 즐거움이 아닌 정신적 총만함, 삶의 에너지를 주는 감동에 초점을 맞춘 공연으로 국악이 가진 아날로그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또 국악인 남상일씨와 사물놀이 전통연희단 난장 & 판, 몽골 전통악기 마두금 연주자 겸 작곡가 Munkhin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악인 남상일씨는 유쾌한 입담으로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2007년 KBS 국악대경연 종합대상, 2010년 대한민국 국회문화대상 올해의 국악인상, 2012년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과 함께 타고난 예능감각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인기 국악인이다. 청주시립국악단은 1985년 창단이후 서한범 초대 지휘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대 상임지휘자가 위촉됐으며 국악과 창작음악을 접목한 다양한 콘서트 개발 및 실험적 공연제작으로 살아있는 감동의 한국음악을 이끄는 국악단으로 연간 100여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연주회를 갖고 있다.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8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티켓은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진안 예술문화인들의 축제 성황... 관람객 200여명 참여

진안지역 예술문화인들의 축제인 2018 진안 예술제 '산바람 물소리'가 지난 26일~28일까지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진안예술제는 '대화'를 주제로 예술과 사람이 만나 설렘을 가득 안고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한국예총 진안지회(회장 이승철)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항로 군수, 신갑수 군의장 등 각계각층의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관람객 200여 명이 참여해 예술인들의 향연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기념식이 끝난 후 2부 공연행사에서는 음악협회 연주회, 문인협회 시낭송,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관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철 회장은 "한 해 동안 각자 역할을 반듯하게 수행해온 결과 지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진안예술제의 변화를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지역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는 예술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져 진안



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며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